

34 | 타이어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변이성 협심증과 천식

성별	여	나이	57세	직종	타이어 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 개 요

1993년 5월 20일부터 ○○타이어(주) ○○공장에서 비드재단 및 절단 작업을 하였다. 1994년 6월, 천식 진단을 받았고 2000년 4월 30일 퇴직하였다. 2000년 10월 변이성 협심증을 진단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천식과 협심증 등으로 외래 치료 중이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나○○는 1993년 5월 20일부터 2000년 4월 퇴사시까지 ○○타이어(주) ○○공장에서 수동 비드기 운전원으로 작업하였다. 비드제조 작업은 고무를 압출기에 넣어 반제품(휠러와 후랩퍼)을 만들도록 절단, 나비드를 수동 비드 기계에 적재하고 스위치를 눌러 나비드에 휠러를 감고, 손으로 마무리 이음새를 붙이는 것이었다. 현재의 작업환경 노출 평가 결과 분진, 고무흄,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기용제들은 모두 미미한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유기용제 등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에서 스티렌 등 천식 감작 물질로 알려진 성분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3 | 의학적 소견

퇴직 근로자 나○○은 1986년, ○○산업에서 방직제조공으로 일하였는데 당시 먼지는 많았지만 사용한 화학물질은 없었으며 건강 영향도 없었다고 진술

하고 있다. 1993년 5월 20일 ○○타이어에 입사 시 본인은 건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99년 하반기 건강검진 기록 상 고혈압 외에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비흡연자였으며 가정 내에서 간접흡연은 없었다. 천식 발생 이후 가정 내 청소용품 사용도 중단하였고, 가정 내 애완 동물을 키우는 등 다른 의심되는 노출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가족력은 없었고, 다른 과거 질병력도 없었다. 1994년 6월 천식 진단을 받았고 천식 발작으로 응급실과 외래를 방문하는 일이 잦았다. 2000년 4월 퇴직하였고 2000년 10월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료 중 변이성 협심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진료와 외래 진료를 반복하였다. 본인은 작업을 그만둔 후 전보다 나아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4년 이후 외래 진료 결과를 검토한 결과 호전되었다는 경과와 약물 용량 감량 등의 소견을 볼 수 있다.

4 결 론

근로자 나○○은

- ① 퇴사 3년 후 발생한 변이성 협심증은 병리적 특성과 시간적 선후관계를 보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 ② 천식은 입사 후 1년 이후 발생하여 근무하는 동안 증상이 지속되었는데, 내인성 천식은 나○○의 작업환경 중에 존재하였던 온·습도, 훈증기, 냄새 등 물리적 자극과 분진과 휘발성 화합물 등 화학적 자극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무 중의 천식은 업무 관련성이 있었지만,
- ③ 퇴직 후 잔존하는 천식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 나○○의 변이성 협심증의 발생과 악화에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재직 중 천식의 잦은 발생과 심한 임상 증상은 작업관련성이 있었으나, 퇴직 후 잔존하는 천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